

(주)버추얼 홀딩스 정한용 회장
(지구 홍보대사, 서울인유RC)

사람을 향한 봉사 회원을 위한 리더



우리나라에 정한용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가 20년 이상 로타리안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뛰어난 연기자에서 민의를 돌보는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다시 배우와 방송 진행자, 사업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한용 3650지구 홍보대사를 만났다. 그는 특유의 거침 없는 화법으로 인터뷰를 주도했다. 물질적 가치만 도드라지고 삶의 방향과 가치를 밝혀줄 '철학'이 부재한 시대에 로타리와 로타리안이 가져야 할 '철학'에 대한 정한용 지구 홍보대사의 생각을 들었다.

로타리안들이 지구 홍보대사님을 '숨은 리더'로 추천했습니다. 사회적 봉사에 대한 지구 홍보대사님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봉사에도 역지사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만능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책임이 사회의 리더인 로타리안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눔은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 우리의 선의가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수용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나눔을 건네는 사람이 기분 좋은 봉사가 아니라 받는 이의 인간적 자긍심까지 고민하고 지켜줄 수 있는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홍보대사님의 '숨은 리더'로서의 봉사활동이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동방사회복지회를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필요한 물품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있는 아이들은 돌도 되지 않은 영아들이지만, 아직 자신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쉽게 떼를 쓰지도 못하고 목청껏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는 것이지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해 줄 엄마와 아빠가 없다는 것을요. 이 아이들은 저를 비롯해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과 계속 눈을 맞춥니다. 자기를 알아보고 사랑을 달라는 것인데, 그들의 맑은 눈을 들여다 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이 곳의 아이들은 돌이 지나면 위탁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위탁가정으로 가게 되면 입양의 가능성,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가



정한용 지구 홍보대사의 소속 클럽인 서울인유로타리클럽은 동방사회복지회 미혼모 영아들을 돌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회원들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통해, 봉사를 통해 기쁨과 슬픔, 행복과 아픔을 공유하게 됩니다.

로타리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로타리는 사람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로타리 회원 중에서 로타리를 개인의 인맥을 쌓기 위한 사교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타리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로타리안으로서의 공이적, 이타적인 목적에 대한 의식은 희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로타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맥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유지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사회는 조직이고 네트워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의 가르침 중에 '불천지지(不踐之地)'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밟지 않은 땅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발이 밟을 수

있는 좁은 길만 있다면 양 옆이 낭떠러지라서 그 길이 위험해서 갈 수 없는 것이고 밟지 않는 많은 불천지지 덕분에 넓은 벌판을 우리는 마음놓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맥은 내가 애써 찾지 않을 때, 밟지 않은 땅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맥이란 건 내가 의식하지 않아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타리안과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초찬모임에 왔는지, 내가 로타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로타리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율을 높

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원들끼리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클럽 간 횡적 연대도 보다 활발해져 서로에게서 장점을 배워야 합니다. 회원들에게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타리는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나와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나누는 일이 즐거워서 계속 나오고 싶어 하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가 있는 회원 중심의 로타리와 로타리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로고스(이성)가 아니라 파토스(감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직, 사람의 감동을 만드는 로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추고,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 애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매력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약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잘난 사람끼리라면 부족할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보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좋은 로타리,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